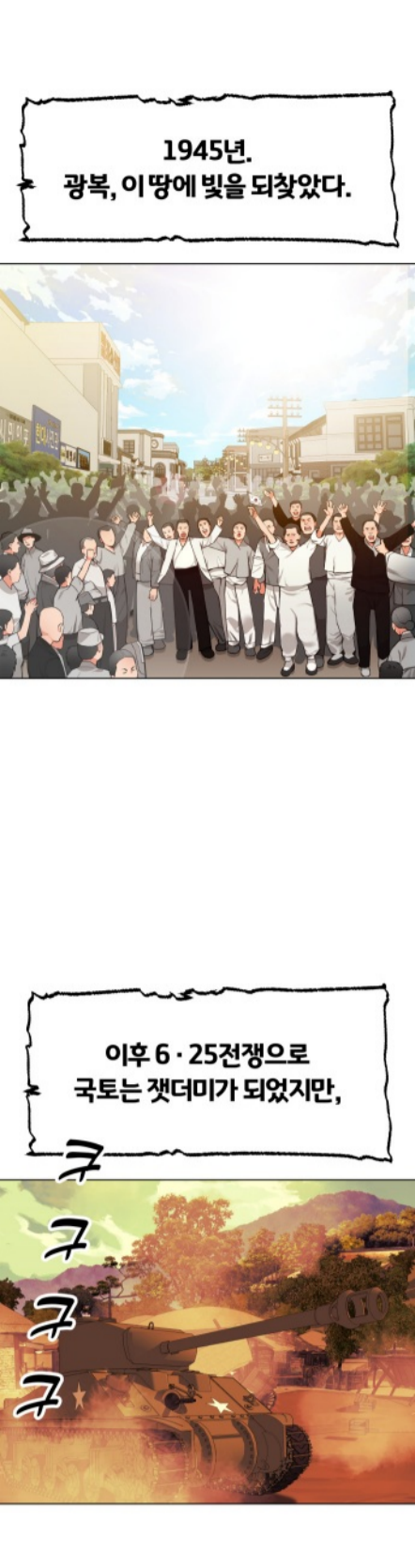


독립에 대한  
우리민족의 열망과  
일본의 패망으로 인해



1945년  
광복, 이 땅에 빛을 되찾았다.



이후 6·25전쟁으로  
국토는 잿더미가 되었지만,



이 땅의 국민들은  
순순히 무너지지 않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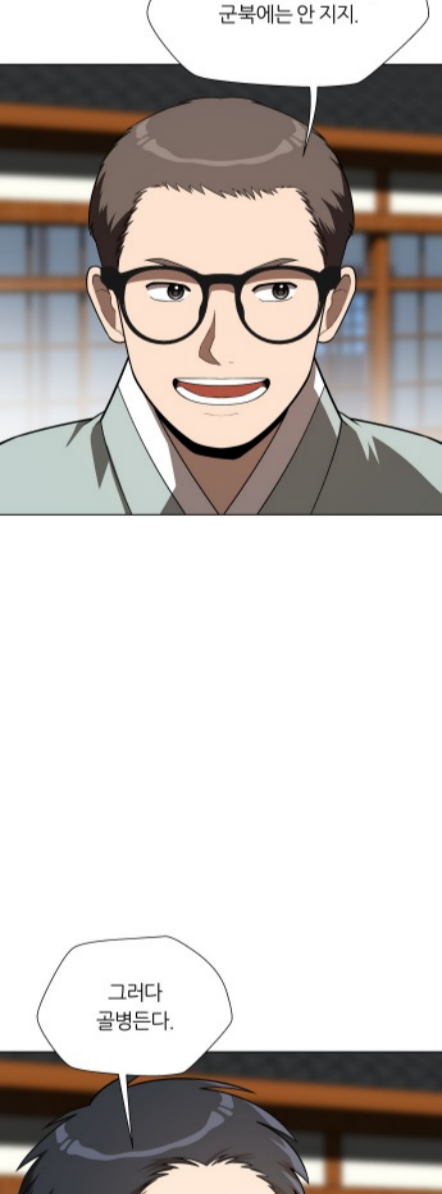
남명 조식의  
경의 사상 영향이 컸던  
서부 경남,  
그곳의 중심도시  
진주의 한 마을...



이곳 지수보통학교에서  
만난 아이들은



어느새 성장하여  
대한민국을 이끄는  
기업가로 거듭났다.



그때 이후로  
얼마만인가...

종합상사, 모직회사,  
설탕 제조사 창업주  
**이영철**

촉구하러 와서는  
그날 수업을 들었었지.

종합상사 창업주  
**조인제**

우리 그때 여기에  
소나무 한 그루  
심지 않았었나?

화학회사,  
전자회사 창업주  
**구해인**

그랬는지  
아직도 있으려나?

심은 위치가  
헛갈리긴 한데,

혹시 아까본  
큰 나무가...?

이거 맞아.  
이 위치였어!

무릎 크기만 한  
묘목이었는데  
학교보다 더 컸네.

오래간만에  
촉구 한판 할까?

내가 이 나이 먹어도,  
군복에는 안 지지.

그러다  
골병든다.

손자도 있고  
이끄는 기업도  
있는데  
몸 사려야지.

하하하하하!



그 학교에서 일어난...



...작지만 큰 이야기.

